

경영저널



축제 2016수성못 페스티벌 성료
Cover Story 이진훈 수성구청장
사회 범어네거리, 교통안전 대책 절실
Hot Issue 정부, 인문계 전공자 취업 '앞장'
현장출동 상표법 빈틈 노린 '악성 피해사례' 기승
기업 탐방 쓰리디코리아
음식 명가 마리 요리
정책 대구시, 시민 소통 '활짝'
초대석 김경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55th
2016 10



- 06 **축제**
2016 수성못 페스티벌 성료
- 08 **Economy**
도청 신도시 유관기관 이전 활발
- 10 **커버스토리**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 실현”
- 14 **교육**
수능 응시생 2만5000여명 감소
- 16 **시사 IN**
특허청, 특허이전 등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 18 **Hot Issue**
정부, 인문계 전공자 취업 ‘앞장’
- 20 **News Wide**
포항공항 평균 탑승률 60% 육박
- 22 **정책제안**
문화도시 수성구를 위한 정책제안
- 24 **정책제안**
수성구, 정책실명제로 행정 투명성 제고
- 26 **사회**
범어네거리, 교통안전 대책 절실





40

- 28 **법률해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30 **칭찬합시다**
김응수 포항시청 도시녹지과 팀장
- 32 **시사진단**
수입차 시장 '회청', 원인과 대책은
- 34 **청호(靑湖)칼럼**
- 36 **기획**
수성구, 명품 평생학습 박차
- 38 **현장출동**
상표법 빈틈 노린 '악성 피해사례' 기승
- 40 **음식 명가**
마리 요리
- 42 **초대석**
김경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 44 **기업 탐방**
쓰리디코리아
- 46 **Industry**
道,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본격 시동
- 48 **정책**
대구시, 시민 소통 '활짝'
- 50 **경북, 축제로 물들다**
- 53 **지역 소식**

경영저널

통권 제55호

발행인·인쇄인	이진구
편집장	홍순대
취재	이 혁, 도효진
사진	김원현
편집디자인	배은정
편집위원	윤정현, 민경량, 한혁동
인쇄처	신흥인쇄(주)
발행처	http://www.dgnews.co.kr
본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등록번호	경북, 라 06418
창간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8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90,000원
정 가 : 8,000원

예금주 :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 용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대구·경북·시·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k_journal@daum.net

전화: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2016 수성못 페스티벌 성료



대구의 대표 축제인 수성못 페스티벌이 올해도 성대하게 개최됐다. 올해는 수성못 전체를 무대로 사용해 축제 공간을 넓혀 방문객들의 편의를 개선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행사부터 각 자매도시들의 특산물 판매, 미디어 불꽃 쇼 등 프로그램들도 풍성하게 마련해 성공적인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축제는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과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린 음악 공연 등 축제와 연계한 행사들도 마련하면서 수성못 페스티벌의 발전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 전시 ‘호응’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수성못 일대에서 열린 2016 수성못 페스티벌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23일 저녁 수성못 수상무대에서의 전야제를 시작으로 시작된 축제는 25일 밤에 열린 워터보드 공연과 폐막 불꽃쇼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가족이 즐거운 축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예년과 달리 수성못 자체를 무대로 사용해 축제 공간이 넓어지고 즐길 거리도 다양해졌다.

특히, 시속 30km로 달리는 9인승 제트보트 2대에 시민들이 탑승해 수성못을 즐기는 ‘파티션 수성못 투어 무료체험’과 오리배, 투명 카약 경주 등 실제로 수성못에 들어가 물을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다른 체험행사와 함께 즐거움을 제공했다.

24일에는 오후 7시부터 청도 온누리 국악단 공연, 오페라 수상콘서트, 멀티 퍼포먼

스 불꽃쇼, 이대희 영화 OST 콘서트 등 화려한 행사가 잇따라 펼쳐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으며, 오페라 수상콘서트에서는 2016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공연될 작품인 오페라 ‘토스카’와 ‘카르멘’ 등 주요 작품의 서곡과 아리아가 펼쳐져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가족 단위 방문객 즐길거리 풍성

이번 축제는 ‘가족이 즐거운 축제’를 주제로 한 만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거 확충됐다. 상화동산 키즈랜드에서는 온 가족이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였고, 어린이들을 위해 신선히 열기구 체험, 마술공연, 에어바운스, 물망이 인형극, 공예체험, 전통놀이체험, 캐릭터 포토존, 미술체험 등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마당놀이 ‘신유량

놀이전’, 퓨전 마당놀이 ‘최진사 덕 셋째 딸 신랑 찾기’ 등이 진행됐고, 버나 돌리기, 투호 던지기, 윷놀이, 비석 치기, 떡메 치기, 전통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와 나무 매듭피리 만들기, 실팽이 만들기, 대나무 헬리콥터 만들기 등 전통 놀이감 만들기 체험도 마련돼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수성못 페스티벌과 연계한 행사 마련

축제 기간 동안 수성못 동쪽과 남쪽 산책로에서는 표구철 작가의 한지 공예품 100여 점과 시민 참여 작품을 공동전시하는 ‘꿈을 전하는 구름 물고기’전이 펼쳐졌고, 수성못 동쪽 수변에는 ‘행운의 동전 던지기’ 존이 마련됐다.

또한, 들안길 일원에서는 24일 ‘50톤 금수저를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더불어 수성아트피아 무학홀에서는 23일 ‘대구청년 클래식 음악제’, 24일 ‘아트피아 생활예술 페스티벌’, 25일 ‘꿈의 오케스트라 안동-대구 교류 음악회’ 등이 열려 축제 본 공연 외에도 풍성한 문화 공연이 진행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올해 수성못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방문객 편의 개선, 프로그램 다양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내년 축제는 올해 축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욱 풍성하게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혁 기자



도청 신도시 유관기관 이전 활발 목표기관 중 107개 기관 ‘이전 희망’



경북도가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유관기관·단체 신도시 이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가 유관기관·단체의 도청 신도시 이전희망을 파악한 결과, 130개 이전목표 기관 중 107개 기관이 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북도청을 비롯한 도교육청,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 도청새마을금고), 도청우체국 등 1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며, 오는 12월말까지 한국양묘협회경북도지회를 비롯해 경상북도보훈회관과 광복회, 월남참전자회 등 보훈관련 10개 기관이 입주하는 등 총 13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여러 유관기관단체에서 신도시내 청사신축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현재까지 12개 기관(보훈회관 등)이 공사 진행 중이며, 3개 기관(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 등)이 설계진행 중에 있어 건물 신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신도시 1단계 지역 내에 100여개 객실 및 컨벤션센터를 갖춘 한옥형 호텔은 18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단계 지역내에 응급의료센터, 암센터 등 약 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북 메디컬콤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도는 정부지방합동청사를 비롯한 주요기관의 조기입주를 위해 중앙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

해 일반아파트 8개단지 7,105세대, 공무원임대 644세대를 등 총 7,749세대를 분양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교가 개교했으며, 고등학교는 2018년 3월에 인근 감천고등학교를 신도시로 이전 재배치해 완전 기숙형 공립자율고등학교를 설립, 신도시 명품고등학교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차후 경북도는 유관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관유치를 위한 합동설명회, 간담회, 대상 기관방문 등 적극적인 현장 유치활동에 힘 쏟을 계획이며, 이전 유관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별 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동시·예천군과 협의해 사육이전에 따른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상동 도 신도시본부장은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기관단체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종합병원, 호텔, 대형마트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을 조기 유치해 신도시 기능을 갖추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효진 기자



| 인터뷰 |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Profile

1956년 8월 28일 경북 상주 생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행정학과 - 행정학석사
美 마이애미대학교 경영대학행정학과 - 행정학석사
계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 환경과학전공, 이학박사(2004년)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공군장교 복무
대구광역시 환경녹지국장
대구광역시 경제산업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구청장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대구시 수성구청장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 실현”

대구 대표 ‘부자 도시’, ‘교육 1번지’로 손꼽히는 수성구가 이제 재정, 교육, 행정, 복지 등 다방면에서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수성구는 ‘시민토크’ 등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점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및 복지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개선, 역량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에 수성구를 이끄는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을 목표로 주민들에게 지역의 역동성, 자부심, 행복감을 심어주고자 주머니에 늘 주민들의 공문을 가지고 다니는 등 현장 소통 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Cover Story에서는 이진훈 수성구청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민선6기 반환점이 지났다. 소감은?

A 수성구민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수성구청장의 첫날을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5기의 성과를 토대로 저의 공직과 정치철학인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46만 구민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과 배려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보고 들은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덕분에 추진해 온 사업들이 곳곳에서 결실을 거두고 있어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 지역단체장으로서의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 2년의 반환점을 계기로 각오를 새로이하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준비해 온 사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달려 온 길을 되돌아보고, 외형보다는 구민들이 만족하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할 생각입니다.

Q 대구공항 이전 관련 비판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은?

A 대구공항 이전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전 반대 의견이 10%나 더 많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대구시 8개 구청장, 군수가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도 대구시장에게 대구공

항 이전 과정에서 대구시의 역할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의도대로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인구 250만 정도의 도시에는 공항이 있으며, 이는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결정을 했다면 대구시에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공항을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보다는 K2 안에 있는 제11전투비행단을 이전해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수성구하면 가장 먼저 교육이 떠오른다. 본인이 만들고 싶은 ‘교육도시’는 어떤 것인지?

A 모든 정책은 결국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기 위한 정책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 중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육도시는 평생교육도시입니다. 이는 개인의 역량 개발을 넘어 사회자본을 증대시키고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발굴되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평생교육도

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수성토크' 등 시민 소통, 현장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민들 목소리를 들은 후의 소감은?

A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6기에 걸쳐 매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수성토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생생토크', 직원들의 속마음을 듣기 위한 '공감토크' 등 다양한 소통행정을 펼쳐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은 해결방법을 찾고 있으며,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구직, 구인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수성여성클럽 및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구축해 여성의 사회적 재진입을 도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으며, 2014년 파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2016년 파동제1경로당을 신축, 개소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의 제안들이 구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면서, 행정이라는 것이 일이 되도록 움직여 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많고, 그것이 결국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통의 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평소 구정참여에 소극적인 2030세대와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청년 세대의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보는 '2030 청춘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Q 수성구는 이제 '부자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복지도시'로도 발돋움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해 추진 중인 정책이 있다면?

A 우리 구는 생활수준이 높은 만큼 복지에 대한 기대치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6.3%(28,368여명)가 저소득층으로 수성구가 살기 좋은 도시임은 분명하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한 편입니다. 정부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는 등 복지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를 구정 주요정책으로 삼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여성·보육 분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을 위해 권역별 노인복지관, 경로당 건립 확대 등 노인 복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장애인 분들의 경우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 86.5%가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및 기대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올해부터 스포츠 클라이밍, 파크골프, 태권도, 댄스스포츠, 수영, 재활승마 등의 차별화된 장애인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수성'을 비전으로 삼고 수성구만의 특화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지난 2013년 9월 여성일자리 지원기관인 '수성여성클럽'을 개관,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방향을 설정했으며, 금년도에는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민간어린이집 5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확충하는 등 보육 복지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대구 최초 모바일 앱 '복지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다누비 기동대를 운영해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동별 복지후원 단체인 '희망나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공적·민간자원을 연계, 후원하고 있습니다.

Q 재정 확충, 자율화는 모든 지자체들의 숙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A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은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므로 주민의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7월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해 보다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전년 7월말 징수금액인 10억 원보다 50% 증가한 15억 원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지속적인 노력과 공감대 형성으로 기존 2015년 20.65%에서 올해 1% 상향된 21.65%, 2017년에는 22.29%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교부받았습니다.

더불어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지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부처·국회, 대구시·시의회와의 지

속적인 연계로 2015년 특별교부세 48억원, 특별교부금 5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란 지방분권에 부합하는 지방재정의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재 80:20로 이루어져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시세와 구세의 세목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국제수준으로의 축소, 지방세 세율(과표)의 현실화 등 중앙정부와 연계한 제도 개선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지난 2월 '인자수성'을 수성구 도시브랜드로 정한 바 있다. 수성구에 대한 본인의 행정 철학이 있다면?

A 대한민국 교육, 문화 대표도시 수성구의 이미지에 걸맞은 도시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명품수성'이라는 브랜드는 명품이라는 말이 너무 외형적인 느낌을 주고 위화감을 준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어일색인 타 도시 브랜드와는 차별화를 두고 수성구만의 정체성을 가지는 수성구만 사용 가능한 브랜드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가까운 지인이 공자(孔子)의 논어(論語) 웅야편(雍也篇) 인자수(仁者壽) 구절의 수(壽)와 수성구의 수(壽)가 일치한다며 이것을 잘 활용해 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었고, 인자수(仁者壽) 구절의 뜻을 살펴보니 다양하고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돼 인자수(仁者壽)와 수성구(壽城區) 두 단어를 결합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논어 웅야편의 구절 "지자락(知者樂) 인자수(仁者壽)라" 이는 "지혜롭고 사리에 밝은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사람은 오래 살아 장수하게 된다"라고 널리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수(仁者壽)가 나타내는 속 뜻을 보면 인(仁)은 단순히 어질다는 뜻이 아닌 '감각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상태'를, 수(壽)는 오래 산다는 뜻보다는 '건전하고 건강한 삶'으로 풀이됩니다. 인자수(仁者壽)와 수성(壽城)의 합성어 인자수성(仁者壽城)을 풀이하면 생동감 넘치는 건전한 공동체 즉,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을 의미해 우리 구의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인자수성이 의미가 조금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성구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감토크 시간을 가져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해 볼만 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공직과 정치철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을 변화시



키는 정치,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이며, 이를 실천하고 주민들의 높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런 소신과 철학으로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를 완성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며 인자수성의 의미처럼 내면을 알차게 채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는?

A 우리 구는 지난해 9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공동 기획 실시한 '2015년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30여개 기초단체 중 종합 6위를 차지해 전국적으로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올리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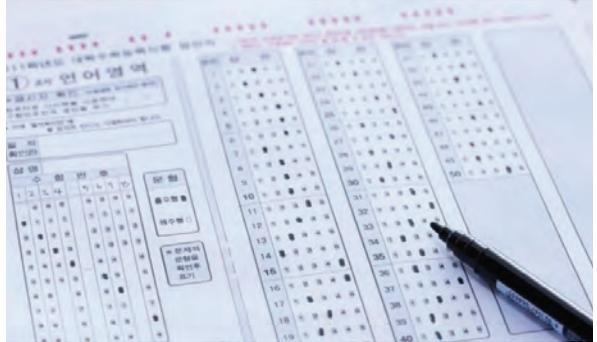
'2016년 행정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구는 주거환경과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교육 및 문화의 중심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국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와 그 외 언론보도 등 각종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입증됐듯이 우리 주민들은 교육과 문화 분야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러한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리 구는 올해 1월 1일자로 구청 내 교육문화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앞으로는 교육·문화·관광도시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더불어, 안전과 건강, 희망나눔의 복지도시 기반 위에서 지식을 나누고 문화를 향유하며, 누구나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를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혁 기자

수능 응시생 2만5000여명 감소

졸업생 응시생 감소, 비율은 되레 상승 제2외국어 · 한문영역 69% ‘아랍어’ 선택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능 응시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이 지난해보다 2만50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이 대폭 줄어들게 된 건 재학생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2만2712명(4.7%) 감소했기 때문. ‘물수능’ 영향으로 2014학년도 수능 이후 2년 연속 증가하던 졸업생도 올해는 970명(0.7%) 감소했다. 졸업생에는 재수생뿐 아니라 반수생도 포함된 숫자다. 전체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은 21.5%에서 22.3%로 0.8%포인트 늘었다. 내리막길을 보이던 졸업생 비중은 2014학년도 19.6%에서 2015학년도 20.5%로 오르며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달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지난 9일 마감한 결과 총 60만598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수능 지원자 중 남학생은 지난해보다 1만3332명 감소한 31만451명(51.2%)으로 집계됐다. 여학생은 30만7404명(48.7%)으로 지난해보다 1만1867명 줄었다. 과학탐구와 제2외국어 · 한문영역 지원자는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제2외국어 · 한문영역을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탐구영역 지원자 59만789명 중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은 32만834명(54.6%)으로 지난해 35만7240명(58.3%)보다 3만4406명(9.6%) 감소했다. 반면, 과학탐구 선택자는 24만6545명(40.2%)에서 26만11명(44.0%)으로 1만3466명(5.5%) 늘었다. 과학탐구 선택자 증가는 의대 정원 증가 등의 영향에 따

라 상위권 학생들이 문과보다 이과를 선호함으로써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이 구조조정으로 취업 안 되는 인문사회계열 학과를 줄이고 이공계 학과 정원을 늘린 것도 과학탐구 증가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수학영역 지원자에서도 이과생이 증가했다. 이과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가형 지원자 비율은 33.4%로 지난해 수학B형 27.9%보다 5.5%포인트 늘었다. 수능 지원자는 올해 2만5000여명 줄었는데 반해 이과생은 거꾸로 지난해보다 2만4486명(14.8%) 늘어났다. 사회탐구영역에서는 지원자의 58.3%(18만8061명)가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다. 과학탐구영역에서는 ‘생명과학 I’을 선택한 응시생이 60.3%(15만6733명)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제2외국어 · 한문영역에서는 아랍어 선택 현상이 더 심해졌다. 현재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찾아보기 힘든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제2외국어 · 한문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69.0%가 아랍어 I 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랍어 응시생 비율이 지난해 51.6%에서 17.4%포인트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아랍어를 선택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은 다른 언어에 비해 조금만 공부해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에서 아랍어 I 은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분석됐다. 절반만 맞추어도 1등급을 받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능 점수체계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아랍어 열풍’은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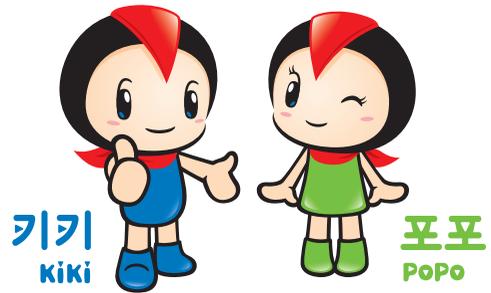
이 혁 기자

특허청, 특허이전 등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권리일부말소 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등 등록제도 편의 개선

특허이전 등 등록신청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 ① 등록원인 서류에 단독신청 승낙의사를 기재할 경우 단독신청 가능
- ② 권리일부말소 신청시 인감증명서 등 제출 폐지
- ③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등의 이전절차 간소화



	〈현행〉			〈개정〉	
구분	질권설정	질권설정(권리이전)		질권설정	질권설정(권리이전)
제출 서류	근질권설정계약서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 처분승낙서	⇒	근질권설정계약서 (특약기재) 처분승낙서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생략)

특허청이 지난달 13일부터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등록신청 관련 서류제출 간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등록신청인의 불편 최소화 및 고객편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지난달 ‘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에는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양도인)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특허권을 이전받는 자(양수인)가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원인서류(양도증)에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의 등록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에도 특허권을 이전받는 자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특허권 등의 권리를 이전할 경우 본인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이제는 권리 중 일부 청구항 혹은 일부 지정상품을 말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권리를 일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특허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

지 못할 경우 해당 권리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전에는 특허권 등의 질권 실행으로 인한 권리이전 시,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등의 양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은행과 특허권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설정되고 처분승낙서를 첨부하게 돼 향후 권리이전 시에는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준호 특허청 등록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객들이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등록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혁 기자

정부, 인문계 전공자 취업 '앞장'

고용부, 재학생 직무체험 위한 부처 간 협업 실시



인문계 전공자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장기적인 인문계 취업난에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 '문송(문과라 죄송합니다)'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인문계 구직자들의 자존감까지 떨어진 지 오래다. 이에 교육부와 고용부는 이러한 현상을 타계하고 인문계열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한 융합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우선, 인문·사회·예체능계 대학생의 현장 직무체험을 위해 대학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LINC, CORE) 예산을 학생 직무체험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협업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고 학생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고학생 위탁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대학을 '직업훈련기관'으로 추가 인증하고, 추후 과정이 선정되면 고용보험기금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확대

고용부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생의 재학 중 일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대학들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고용부는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직무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비(LINC, CORE) 중 현장실습 예산을 '재학생 직무체험'의 대학 부담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매칭 여부 및 지원액은 40만원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더불어 직무체험이 학습의 연장인 '체험형' 사업인 점을 고려,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기업에 지원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 활용을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4년제 대학 외에 전문대학도 사업대상에 포함하





고, 대학 모집도 기존 공모방식에서 수시 모집·선정 방식으로 변경해 지난달 참여대학을 추가 모집했다.

이와 함께 소속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직무체험을 못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인턴제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한 '개인형 직무체험'을 신설했다.

전문대 연계 일반고 직업과정 지원 확대

교육부는 일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3학년 학생에게만 제공됐던 직업교육을 2학년 학생에게도 확대하고, 직업교육 위탁기관을 민간위탁기관에서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대학으로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이러한 '전문대와 연계한 일반고학생 위탁 직업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동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증하고 고용보험기금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고용부는 하반기에 전문대 대상 추가 인증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연내에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그간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등 취업지원 재원이 집중된 반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향후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직무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취업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통해 일반고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등 고졸 취업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이러한 협업모델이 타 사업 및 부처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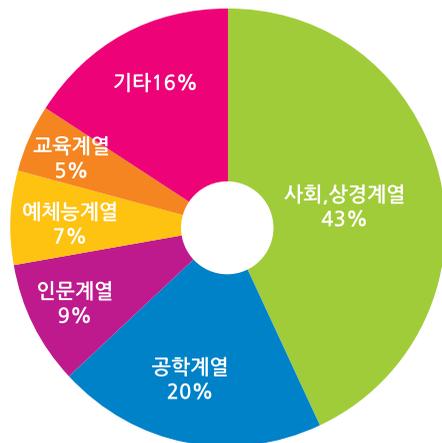
인문대 위한 '융합 직업' 소개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5월부터 취업난을 겪는 인문계 대학생들이 도전할 만한 융합 직업을 소개한 직업정보서 '인문계열 진출 직업'을 발간해 융합 직업을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은 전통적인 인문계열 강세 직업뿐만 아니라 언어·소통 능력, 기획력, 창의력 등 인문학적 소양에 정보통신기술(ICT), 의료, 공학 등을 더해 자신만의 경쟁력을 높여 취업에 도전할 만한 유망 융합 직업 15개를 간추렸다. 융합 직업 15개는 ▲산업보안 요원 ▲감성공학 전문가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기획자 ▲테크니컬 라이터 ▲아트 디렉터 ▲게임 기획자 ▲디지털 마케터 ▲UX(사용자 경험) 디자이너 ▲SNS(소셜 네트워크서비스) 분석가 ▲6차 산업 컨설턴트 ▲할랄 전문가 ▲크루즈 승무원 ▲홀로그램 전문가 등이다.

도효진 기자

< 대학생들의 희망 복수전공 >



포항공항 평균 탑승률 60% 육박

군 장병 이용 활성화, 서비스 증진 등 결실



지난 5월 재개항한 포항공항의 탑승률이 60%에 달하면서 포항공항 이용이 본격 활성화 되고 있다.

포항공항의 탑승률은 재개항 초반 38%대에서 시작해 지난 8월 말 기준 평균 51.9%에 달했으며, 2014년 문 닫기 전 탑승률인 45%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평균 탑승률이 60%를 육박하면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항시는 지속적인 포항공항 탑승률 증가를 위해 지난 6월에 개통한 해병대 동문 연결도로와 공항을 운행하는 군부대 셔틀버스 도입을 요청하고, 군 장병들의 포항공항 이용을 유도한 결과 지난 7월 7일부터 8월말까지 459명의 군 장병들이 포항공항을 이용해 포항공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군 장병 포상휴가 시 항공운임 무임 제도가 시행될 경우 포항공항에 여행장병안내소(TMO)가 설치돼 군장병 공항 이용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공항은 공항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에게 주차비 부담을 덜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인터넷 사전 예약 시 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 거처를 두고 인근 경주에 근무하는 한수원 본사 직원 등 기업체 직원들의 경우 자동차로 25분 거리의 포항공항을 이용하면 50분에서 1시간 걸리는 울산공항과 KTX 경주역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현재 탑승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손실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북 동해안권 고객과 포항 시민의 수요증가로 꾸준히 탑승률이 상승해 최고 79.9%까지 도달한 적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지역 기업체인 포스코 및 계열사 등과 운송 계약을 체결할 경우 탑승률 7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이밖에도 포항시는 포항경주공항으로 이름변경을 추진함과 동시에 '편리한 포항공항'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할인 혜택 및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항공사 설립, 포항-제주, 포항-여수 등 항공노선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포항공항 관계자는 "포항공항 재개항 당시 이용 실적 부진이 우려됐으나 탑승률이 60%에 육박하면서 공항에 서서히 활기가 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노선 다변화, 고객 편의 및 서비스 증진 등을 통해 포항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문화도시 수성구를 위한 정책제안

》수성구청, '인자수성' 브랜드로 문화도시 도약

수성구는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를 의미하는 '인자수성'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내세웠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인자수성'을 수성구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교육·문화도시 비전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문화도시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 이후 한층 더 가까워진 수성못의 관광 명소화 사업을 통해 들안길 먹거리 타운, 카페거리 등 주변상권 활성화에 힘을 쏟았으며, 수성못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가수 신유가 부르는 '수성못 첫사랑'을 작사했고, 대구시설공단과 범어월드프라자(범어역 지하차도)를 활용한 거리공연과 문화행사를 활성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수성폭염축제, 수성못 페스티벌, 수성못 불꽃축제, 도심속 작은 음악회 등 많은 구민과 대구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광복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 교통대책 미흡

작년 8월 대구시는 수성못에서 '광복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축제는 메르스, 경기 침체, 청년실업 등 시민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사회 분위기를 전환하고, 창조경제가 뿌리내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특히 광복 70년 의미를 담은 영상과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20분간의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대미를 장식했다.

페스티벌 자체는 6만여 명의 시민이 몰려 훌륭한 성과로 막을 내렸으나 대구시의 교통대책 미비로 혼잡을 빚는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많은 시민이 물리면서 자정이 넘어선 시각까지 일대 도로와 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 등은 큰 혼잡이 빚어져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이 같은 시민 항의로 대구시는 뒤늦게 사태 해결을 위해 오후 11시께 도시철도공사 측에 3호선 증편을 요청하고 8편을 추가 투입했지만 녹장대응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불꽃놀이를 위해 즐거운 기분으로 방문한 시민들은 큰 교통 혼잡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대구시의 행정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국민안전처 우수성 입증

대구시는 '광복70년 신바람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미흡한 교통대책 재발방지를 위해 대규모 축제(행사) 개최 시 체계적 교통 및 안전대책 내용을 담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했으며, 국민안전처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아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됐다.

시는 매뉴얼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축제(행사) 기획·환경·교통·안전 전문가와 수차례 자문회의를 갖고, 축제 관련부서와 기획사, 문화·예술·체육단체가 참석한 설명회와 구·군별 의견도 수렴해 올해 5월 대규모 축제(행사)시 교통처리대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작성을 완료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부서의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 기관·부서 간 협의체계를 검증 받도록 명시하고 3,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



규모 축제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대구시 교통정책과와 사전협의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수립된 매뉴얼을 활용해 대구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가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축제가 되는 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람직한 문화도시를 위한 정책제안

대구시 수성구는 수성못의 관광명소화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축제 개최와 우수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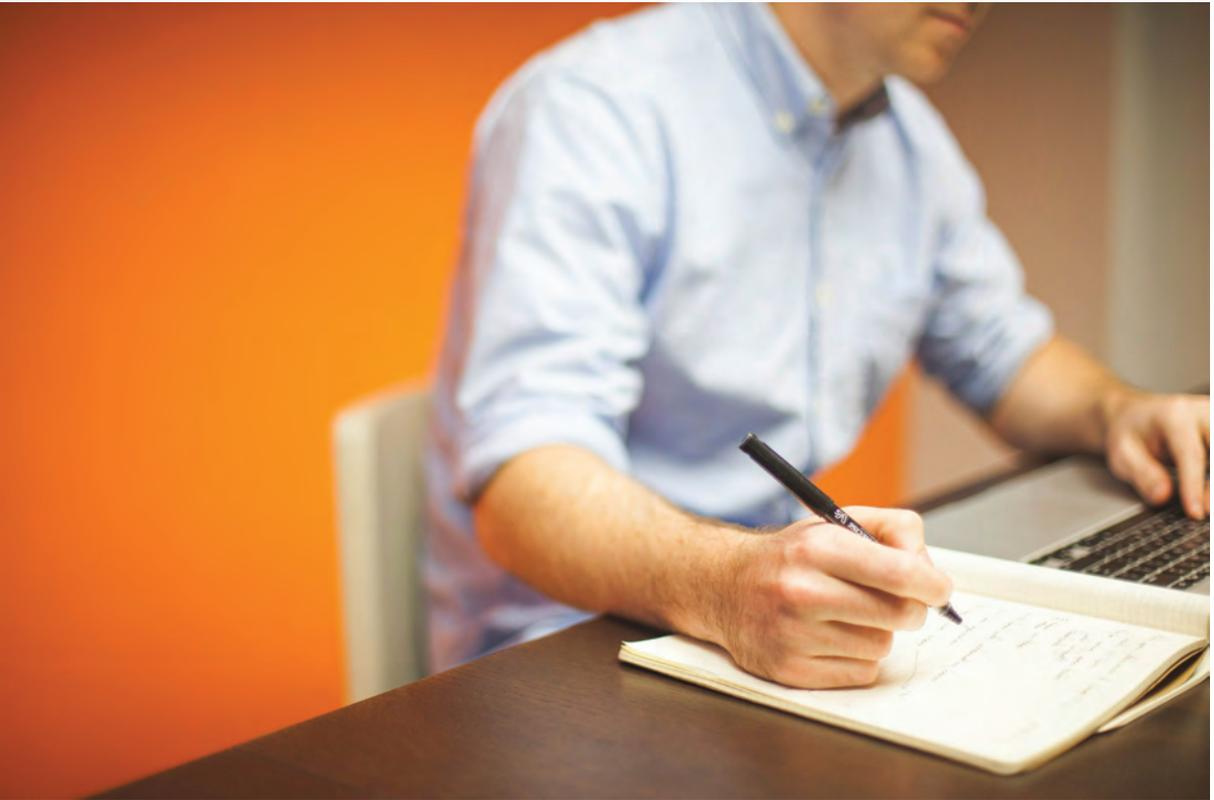
앞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축제와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손으로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지역문화 이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축제를 부각하기 위해 축제를 상표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수성구 또한 지역 축제 명칭을 상표 등록해 타 지자체에서 유사축제를 개최할 경우 모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성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2016 행정수요조사'결과, 93.1%가 정주의사를 밝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도로 교통 분야가 63.8점 수준으로 조금 낮은 편이며, 대중교통 및 주차시설의 부족이 불만족 응답자의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성못과 들안길 등 주요 명소의 주차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대규모 축제를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은주 선임연구원





수성구, 정책실명제로 행정 투명성 제고

>>수성구, 투명한 행정 구현 앞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 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해 정책실명제 시행을 통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중심의 정부혁신' 정책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개념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자치부에서 1998년 공표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5823, 1998. 7.1)'에서 최초로 정책의 실명관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 후 현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103호)' 제63조, 제63조 1~5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고 그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수성구는 지난 2008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규칙 제611호)'을 제정해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적용대상 및 관리

정책실명제의 적용대상으로는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1억원 이상의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구민과 관련된 차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이며 그 대상이 되는 관련자는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이다.

또한 정책실명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실명제 책임관 변동(인사 이동 등)시 실명제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매뉴얼을 관리하고 총괄관리부서는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등록된 자료가 최근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성구 정책실명제 적용 사례

수성구는 해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실명제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해 정책실명제 등록 현황을 반기별 1회 구 공보·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0여개의 정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6년 주요 정책실명제 적용 사업으로는 파동 제2경로당 신축,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진밭골 야영장 정비 등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수성구는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정책실명제를 통해 실명관리 대상 범위를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해 정책 참여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사업관리 이력관리는 물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관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해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 할 수 있도록 해 정책수행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과의 신뢰에 바탕을 둔 행정을 구현해 갈 계획"이라며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구민 알 권리 충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수성구 홈페이지의 정부 3.0 정보 공개 아래 정책실명제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지현 수석연구원



범어네거리, 교통안전 대책 절실

안전 캠페인, 개선 사업에도 사고 이어져 긴 신호 탓에 보행자 - 운전자 '곡에 질주'

대구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 한 곳인 범어네거리가 교통안전 캠페인, 우회전 차로 개선 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안전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범어네거리는 이미 지난 2011년 대구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39건)으로 통계된 바 있으며, 11년과 12년을 합하면 총 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범어네거리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넓은 우회전 구간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좀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아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사고가 잦기 때문. 더불어 넓고 긴 교차로 구간도 사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수성구는 지난 2013년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삼성생명 앞을 비롯한 우회전 구간 폭을 절반가량 줄이고 도로를 굴곡지게 만들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범어네거리에서 정지선을 통과해 건너편 정지선을 통과하기까지의 거리는 최소 50m, 최대 80m다.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더라도 일반적인 교차로의 경우 건너편 정지선을 통과할 수 있지만 범어네거리는 한참 더 가야 통과할 수 있어 다른 쪽에서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면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차로 특성 상 한 번 신호를 놓치면 3분 가까이 기다려야 하기 때

문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신호 변경 직전에도 질주하는 경우가 많아 신호시간이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범어네거리에서 30여 분간 관찰해 본 결과, 범어네거리 내 보행자 신호등 초록 불 유지시간은 평균 45초였고, 다음 초록 불까지는 약 2분 3~40초가 소요됐다. 운전자 신호등 역시 초록 불이 조금 짧았을 뿐 비슷했다. 이처럼 신호 대기 시간이 초록 불 유지시간보다 4배 가까이 긴 탓에 보행자들은 초록 불이 5초가량 남았을 때 뛰어나가는 경우가 잦았으며, 운전자들의 경우 막 신호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질주했다.

특히, 범어네거리 인근에는 초등학교 2곳이 자리 잡고 있고, 노인들 역시 지하철 탑승, 버스 환승 등을 위해 길을 건너는 경우가 잦아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몇몇 어르신들의 경우 횡단보도 중간에서 신호가 변경돼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한 경우도 있어 초록 불 유지시간을 늘리는 등 신호 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범어네거리가 과거에 비해 교통사고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사고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민간단체와 협력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이어가는 등 안전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교차로 실정에 맞는 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혁 기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약칭:지역특구법)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배경과 목적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전략이 지방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인식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도입하게 됐다. 이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

역을 설치해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기초단체장)은 **특화사업¹⁾**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

1)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해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기초단체장이 특구지정을 신청했으면 그 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특



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특구지정 신청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는 의견청취 절차이다. 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제5조1항) 지방의회의 의견도 수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2항)

중소기업청장은 제출된 특구계획의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으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제출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위원회가 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심의·의결을 할 때는 ①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적합인가 ②신청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이 연관성이 있는가 ③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등의 확보계획은 있는가 ④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가능성은 있는가 ⑤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에 적합인가 ⑦지역주민·기업 등의 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청취는 이루어졌는가 등에 대한 내용을 고려해 특구를 지정·승인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되면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자체장 및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해당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구 지정의 이점

특구지정의 이점은 첫째, 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구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둘째,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해 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홍순대 편집장

“시민 치유공간인 산림을 지키겠습니다”



김응수 포항시청 도시녹지과 팀장

매사 최선을 다한다. 그의 이러한 태도 덕분에 팀원들 역시 매사 적극적으로 열정적이다. ‘그린웨이’라는 명칭도 도시녹지과에서 만들어낸 단어이고, 불가피한 민원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민원인과 소통해 해결한다.

김응수 팀장은 “때로는 자기희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과장님, 모든 팀원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주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무탈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면서, “지금처럼 늘 서로 배려하며 책임과 보람을 함께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재직 중에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서, “제가 추진했던 사업을 통해 녹지화가 된 지역을 볼 때마다 공직 생활을 보람을 느낀다. 퇴직 후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으로의 목표로는 현재 진행 중인 포항시 그린웨이,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사업 등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폐선구간의 철도부지를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및 관광명소로 조성해 침체된 원도심에 녹색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빈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

김응수 팀장은 “요즘 화두가 소통이듯이 동료들을 비롯한 여러 분들과 함께 대화하며 진행하다 보면 성공적인 사업 결과가 나올 것이라 믿는다”며, “그린웨이,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사업 외에 송도 송림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제 업무는 도시를 푸르게 화장하는 일입니다”

김응수 포항시청 도시녹지과 팀장이 자신의 업무를 한 마디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에 꺼낸 말이다. 그는 도시의 65%가 산림인 포항에서 회색도시를 푸르게 화장시키는 업무에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각종 녹지정책수립 및 실행, 관리를 맡고 있는 김응수 팀장은 가로수 식재, 화단 조성, 그린웨이,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사업 등 산림, 녹지와 관련된 다방면의 업무들을 맡고 있다.

그는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업무부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굵직한 사업까지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도록 늘 사업진행 현황을 꼼꼼히 체크한다.

그는 ‘정직’과 ‘성실’이 공직 생활을 20여 년 이상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고, 작은 사업일지라도 포항시의 산림과 주민들의 생활에 연관이 되기 때문.

비록, 바쁜 업무로 인해 퇴근 시간이 미뤄지고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민원 사전 예방과 공기 일정 점검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수입차 시장 ‘휘청’, 원인과 대책은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국내 수입차 판매량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우디 폭스바겐의 판매정지로 인해 지난 8월 판매량은 1만6000대에 그쳤으며, 전반적으로 수입차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8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12.5% 감소한 1만5932대로 집계됐다. 이에 수입차 업체들은 무상점검 서비스, 오프로드 체험행사, 할인 프로모션들을 펼치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서비스 차원이 아닌 세제 개정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 ‘먹구름’

국내 수입차 시장에 긴 먹구름이 좀처럼 걷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폭스바겐 사태와 각종 배출가스 이슈가 연이어 불거짐에 따라 디젤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이를 위주로 판매 라인업을 구축한 브랜드들의 판매량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팔린 디젤차량은 총 9만2626대로 전년동기(10만9502대)대비 15.4% 감소했다.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 인기모델인 골프, 티구안 등의 판매가 중단되며 판매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을 비롯한 재규어랜드로버, FCA, 닛산 등 수입차 업체들이 할인 프로모션, 무상점검 서비스 등 국내 고객 유치 마케팅에 나서고 있지만 일시적인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뿐 행사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대구지역 수입차 비중은 이례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승용차 91만8천48대 중 수입차는 8만2천477대로 전체 승용차 중 8.98%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에 속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대구지역 수입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 불황, 매장 감소 등 요인으로 인해 지역 소비심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며,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들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젤차, 환경 문제에 발목 잡혀

수입차가 외면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클린디젤의 명성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인해 디젤차량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낙인찍히면서 국내 수입차의 약 70%를 차지하는 디젤승용차 판매에 직격탄을 맞았다.

게다가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정부의 디젤 인증 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통상 1주일 걸렸던 환경부의 차량 인증 작업이 길게는 3개월 이상 소요돼 신차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디젤차의 대안인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국내외적으로 각광받으며 디젤차의 수요를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어 디젤차 약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도 지난 8월부터 국내 수입차 브랜드 23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과 같은 조작이 일부 수입차 업계의 관행이라는 제보가 있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모든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입차 업계에서는 ‘제2의 폭스바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대책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 나서야

사실 ‘폭스바겐 사태’는 수입차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증폭시킨 단적인 사례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미 문제가 된 배기가스 조작은 뒷전으로 하더라도 비싼 부품비와 공임비를 비롯해 미흡한 애프터 서비스, 소비자 배려 등 충분히 자구책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조차 ‘갑’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어 고객들의 원성이 높다.

국산차 대비 약 2.5배 비싼 공임비와 5배 가까이 비싼 부품비로 ‘카 푸어’를 초래하는 현상 때문에 수입차를 포기하는 고객도 늘고 있다. 이는 곧 충성고객의 급격한 감소를 부른다. 따라서 수입차 업체들은 명성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야 오늘날 가진 부정적 이미지들을 씻어낼 수 있다.

또한, 디젤차의 환경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기차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폭스바겐은 기존 1%에 그쳤던 전기차 생산 비중을 오는 2025년까지 30%를 생산해 20~25%까지 늘리기로 했고, 포드도 오는 2020년까지 45억달러(한화 약 5조1500억원)를 투입해 전기차 13종을 추가한다.

한편, 수입차를 이용하고 있는 한 고객은 “국내 수입차 업체의 위기와 한계가 동시에 찾아온 가운데 수입차 업체들은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 삼아 자사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런 후에야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다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혁 기자

파괴적 리더의 행동을 방지하여 조직의 지속적 발전과 유효성 증대

오늘날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긍정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부정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리더의 파괴적인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성원들을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효성 증대의 기초자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부정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리더십의 어두운 측면, 즉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리더십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파괴적 리더십의 구성개념을 살펴보거나 결과변수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고, 결과론적 관점에서 선행변인인 리더의 부정적 행동이 결과변인인 구성원의 성과(조직유효성)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파괴적 리더십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파괴적 리더십의 본질 또는 올바른 개념화와 측정도구에 대한 개발, 그리고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연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리더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과 언행이 구성원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직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매개변인 및 조절변인의 고려이다.

파괴적 리더십 연구에 대한 가치는 노르웨이 연구(Aasland et al., 2010)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구성원의 약 1/3이 지난 6개월 동안 한번이라도 파괴적 리더십 행동을 인지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파괴적 리더십의 한 형태인 비인격적 감독은 미국 근로자의 약 13.6%가 경험했으며, 그로 인해 연간 238억불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같은 수치는 파괴적 리더십이 조직의 업무 효율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파괴적 리더십은 학문적, 실무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리더십 연구의 새로운 어젠다(agenda) 중 하나인 리더 및 리더십의 어두운 측면을 실증적으로 말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파괴적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과 결과변인, 그리고 이들 변인들 간 순수한 관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제3의 변인을 선정해 변인들 간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부정적 리더십을 지양하고, 오늘날의 리더들이 갖춰야 할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진구
경영저널 대표이사 · 발행인

수성구, 명품 평생학습 박차



대구 수성구가 지난 2011년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한 이후 평생학습 여건 마련 및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구내 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춘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각자의 적성, 교육내용에 발맞춘 동아리 운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과들을 일궈내고 있어 명품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에 수성구는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참여 확대로 평생학습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생학습 육성 순항

수성구는 지난 2011년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한 이후 현재 국제교육도시연합(AEC)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운영위원 도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구지역 대표 도시로 교육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처럼 평생학습이 빠르게 정착,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교육과 관련된 부서를 통합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 수성구는 평생학습관을 통한 중복사업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 사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지난 2014년 만촌, 파동 문화센터 2개소를 확충했고, 지난 7월부터 고산, 지산, 두산, 수성동 등 권역별로 6개의 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새롭게 탈바꿈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평생학습 정보를 통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온라인·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시스템'을 구축, 주민들의 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나눔으로 환원하며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다”면서, “평생학습을 통한 따뜻한 삶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구축 추진

수성구는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서관 중장기계획인 '4+6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따라 수성구는 4개의 대형 공공도서관과 6개의 소형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고, 사립 작은도서관과 연계를 통해 1km이내 주민들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성, 용학, 범어도서관에 이어 네 번째 대형 공공도서관인 국내 유일 스페인풍 고산도서관까지 개관해 대형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구축, 대구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가지게 됐다.

10만 인구가 넘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고산도서관은 대구 최초로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 인증한 국제설계 공모로 건축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연령대에 맞춘 시설배

치로 개관 1달 만에 하루 평균 1,500명이 찾는 지식·문화 허브로 빠르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수성구는 차후 황금권 지역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 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결실'

수성구의 평생학습 육성에 발맞춰 평생학습 동아리들도 주민들의 호응 속에 결실을 맺어나가고 있다.

수성구 평생학습센터의 학습동아리 '평강공주' 회원들은 자신들의 평생학습을 통한 도전과 행복스토리를 담은 책 '아름다운 동행, 향기를 뿜다!'를 펴내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평강공주'는 '(평)생교육 (강)사들이 (공)부해서 남(주)자'는 슬로건의 약칭으로, 40~60대 다양한 직업을 가진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강연콘서트, 요가치료사, 실버건강체조교사 등 총 15명의 강사가 배출됐다.

또한, 평생학습동아리 '소망의 나무'는 수성구와 함께 성인문해 교실 '수성이도학당'을 이끌어가고 있다. '소망의 나무'는 2012년 수성구청에 등록된 학습동아리이며, 한국방송통신대 교육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한글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비문해자들에게 교육하는 동아리로, 수강생들에게 수준별 일대일 과외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예정보다 수강생이 증가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수성구청은 이 같은 호응에 응하고자 수성구 평생학습관에 강의실과 학습자재 등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힘 쏟고 있다.

이 혁 기자



상표법 빈틈 노린 '악성 피해사례' 기승



상표법 침해를 주장한 모 업체 주소 소재지에 위치한 건물. 취재진이 현장에 기본 결과, 간판 하나 없이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다.



관용어 상표 등록 후 유령회사 설립해 상표권 침해 주장, 특허청 감시 요구

최근 상표법에 빈틈을 악용한 피해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허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경북 내 모 업체가 대구경북의 약칭인 관용어 '대경'을 상표로 등록해 대경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나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 업체에서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 목적이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대구경북을 의미하는 '대경'은 상표 등록이 될 수 없다며 특허청의 상표 등록에 허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본보에서 대구 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경'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는 질문에 90% 이상이 '대구경북'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10%는 '대경대학교',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응답한 것처럼 대구경북 내에는 교육원을 비롯한 병원, 음식점, 웨딩홀, 공장 등 약 300여개 업체가 '대경'을 포함한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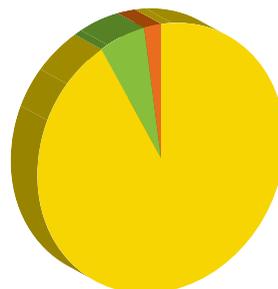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구경북 내에서 '대경'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상표법 침해를 주장하는 업체의 경우 상표만 등록했을 뿐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 고의로 상표만 등록한 후 대가를 요구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에서 소재지에 직접 찾아가 본 결과 건물에는 타 가게만 1층에 자리 잡고 있을 뿐 해당 업체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인터넷 검색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상표권 침해 제기를 받은 업체 관계자는 "이번 상표법 관련 공방처럼 상표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타 업체들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된 업체가 실제로 영업 중인지, 운영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근거 없는 상표권 침해 주장으로 타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제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 '대경'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



- 대구경북(92%)
- 모르겠다(6%)
- 대경대학교(2%)

■ 음식 평가

본보는 음식 평가 코너를 통해 고객과 독자의 입장, 맛, 서비스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로 지역 음식점을 알려 나가고 있다. 음식 평가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 및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신뢰성', 서비스 제공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확신성', 접근 가능성과 고객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평가 결과, 대구 달서구 월곡로 294-1번지에 위치한 '마리 요리'가 영예를 안았다.



마리 요리

맛, 위치, 인테리어 삼박자 갖춘
닭 요리 전문점



음식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세 가지를 꼽으라면 맛, 위치, 인테리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주 메뉴의 종류 정도일 터다. 물론, 누구나 쉽게 생각할 법한 조건들이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음식점 속에서 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마리 요리'는 찐닭 등 대표 닭 요리를 포함해 '치킨 스테이크' 등 마리 요리만의 특색을 살린 요리들을 선보이면서 편리한 교통과 넉넉한 주차 공간, 여심을 사로잡는 우아한 인테리어까지 갖추고 있어 음식점 인근을 포함한 대구 인근 시군 고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1등급 닭만 사용하는 명품 닭 요리

‘마리 요리’라는 상호에서 ‘마리’는 프랑스어로 남편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대접하듯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마리 요리에서는 냉동 닭을 사용하지 않고 1등급 냉장 닭고기만을 사용한다. 최고급 닭을 무리 없이 공급 받을 수 있는 건 마리 요리 이재삼 대표가 오랜 기간 닭 유통사업을 해온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 덕분에 지난해 2월 개업한 후 지금까지도 늘 질 좋은 닭고기로 호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1등급 냉장 닭고기를 이용해 마리아주 짬뽕, 치킨 간pong기, 고객들을 위한 세트메뉴 등 다양한 메뉴를 만듦으로써 다양한 고객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마리 요리의 대표 메뉴인 ‘치킨 스테이크’는 지난 2015년 대구치맥페스티벌 치킨신요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 또한, 치킨 스테이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메뉴들이 순살로 만들어져 먹기 간편하고 파스타의 느끼함을 매콤함으로 커버한 크림파스타 짬뽕, 특제 소스를 사용한 탕수육 등 마리 요리만의 특색 있는 요리들도 준비돼 있어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상인역 8번 출구 바로 옆, 넉넉한 주차 공간

마리 요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편리한 교통과 넉넉한



주차 공간이다. ‘마리 요리’ 주소는 대구 달서구 월곡로 294-1번지로 영남고등학교 바로 옆이자 상인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상인역에 내려서 8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옆에 있고,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네비게이션에 영남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오면 금방 찾을 수 있고, 주차는 영남고등학교 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교사들이 근무 중인 오전, 오후 시간대에도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여심 사로잡는 우아한 인테리어

마리 요리를 찾는 고객들은 가족 단위부터 연인까지 다양하지만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우아한 인테리어가 마치 카페나 레스토랑을 연상시키기 때문. 실제로 내부만 살펴보면 유명 브랜드 카페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보고 있노라면 와인 한 잔이 생각날 정도다. 덕분에 점심시간을 활용한 학부모 모임이나 주부들 모임 장소로 애용되곤 한다.

또한, 80여 평의 넓은 공간에 최대 100여 명까지 수용 가능해서 단체 예약에도 안성맞춤이다. 단체룸만 해도 50여 명 가량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단체 손님들은 따로 떨어져 앉을 필요 없이 빙 둘러 앉아 식사할 수 있다.

이처럼 뛰어난 맛과 인테리어를 갖춘 덕에 체인점 문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마리 요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내실을 다진 후 체인점 오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삼 마리 요리 대표는 “음식점은 저와 고객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10대부터 50대까지 넓은 고객층을 확보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닭요리 전문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혁 기자

김경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인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24시간 동분서주하며 열띤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경숙 본부장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신조 아래 현장밀착형 지원을 목표로 직접대출 시행 등 사업을 시행, 추진하고 있다.

김경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통·지원 최선”



Q)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저희 지역본부는 현장 밀착형 지원, 소통을 중점으로 삼아 공단 지역본부 중 유일하게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분들은 대개 하루가 급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 마감 기한 하루 전날을 업무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하루의 여유를 두고 업무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직접 대출 처리기간이 23일로, 전체 지역 평균 31일에 비해 약 8일정도 앞당기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Q) 본부장으로 지내면서 느낀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저는 42살의 늦은 나이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입사해 상담사 업무를 시작으로 대구센터장, 포항센터장을 거치며 본부장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소상공인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느낀 점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 소상공인은 약 66만여 명으

로, 전국 소상공인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세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분들을 방문해보면 지원은커녕 신용등급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제3금융권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해보고자 본부장 취임 후 센터를 서문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있는 현 위치로 이전해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더 개선해나가야 할 점이 많습니다. 또 광역시 중 대구에만 경제진흥원이 없다는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이나 중견기업 지원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소상공인 분들 역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에 관심을 두고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지역 소상공인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즘 소상공인 분들은 어려운 경기로 인해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는 일이 평생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항상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한다면, 원하는 바를 꼭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들이 항상 곁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저희 대구경북지역본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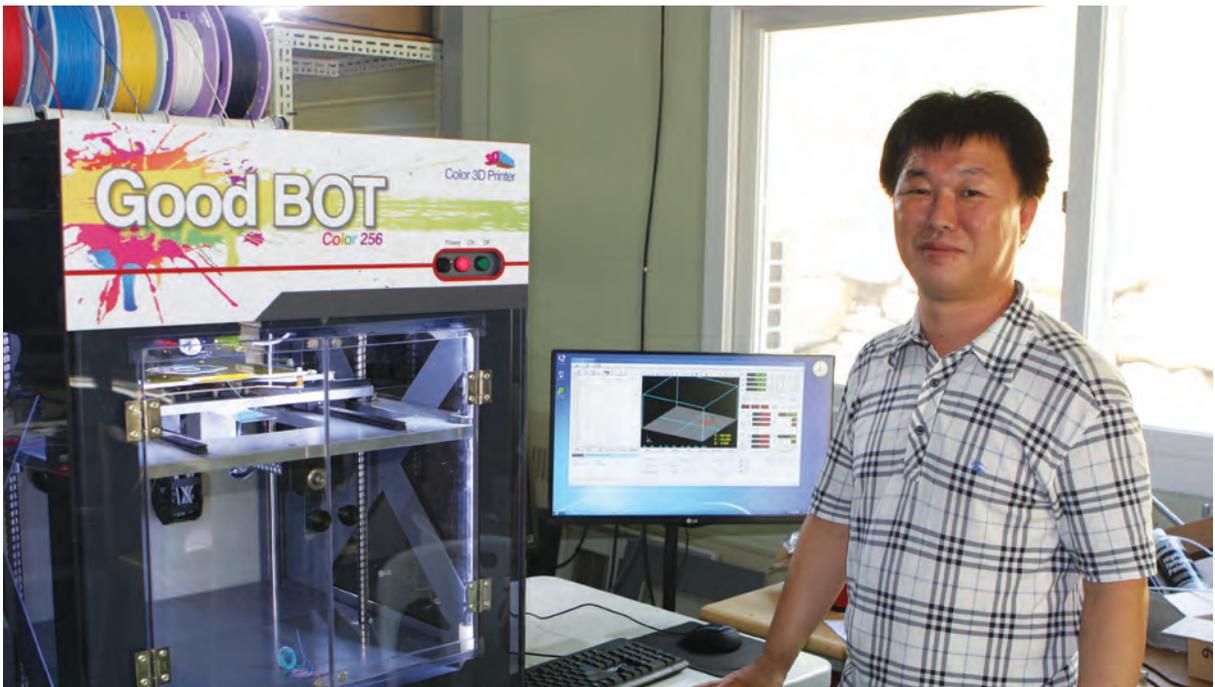
이 혁 기자

3D 프린터가 각광받으면서 기술적인 발전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쓰리디코리아가 풀 컬러를 구현할 수 있는 복합 컬러 헤드를 장착한 3D 프린터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의 3D 프린터가 단색으로 출력하거나 필라멘트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컬러를 구현했다면, 쓰리디코리아의 프린터는 5가지 색상의 필라멘트를 섞어 하나의 노즐로 풀 컬러를 구현하는 것. 최문수 쓰리디코리아 대표는 “같이 용도에 따라 요리, 물품 제작, 예술 도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듯이 3D 프린터 또한 용도나 목적에 따라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며, “지속적으로 자생력 있는 기술을 개발해 3D 프린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쓰리디코리아

세계 최초로 풀 컬러 3D 프린터 개발 3만 가지 색상 구현, 활용도 무궁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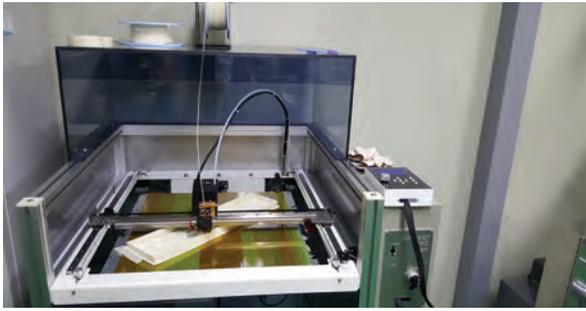


풀 컬러 3D 프린터로 혁신 이뤄

최문수 쓰리디코리아 대표는 기존에 갖고 있던 고분자 합성수지 분야의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난 2010년 2월 3D 프린터용 필라멘트 개발에 착수해 2012년 3월 3D프린터용 고강도 High-PC 개발의 성공을 시작으로 다양한 필라멘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4년 3D코리아를 설립하면서 보급형의 출

력방식인 FDM(Fused Deposition Modeling)방식의 3D프린터용 소재 개발 및 생산과 3D 프린터에 관련된 원천기술의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DPIA 2016 전시회에서 풀 컬러를 구현할 수 있는 복합 컬러 헤드를 장착한 3D프린터 Good BOT(모델명:



Color256)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쓰리 디코리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FDM 방식의 3D프린터용 복합 컬러 헤드는 5가지 색상의 필라멘트를 섞어 하나의 노즐로 풀 컬러를 구현하며, 이런 컬러별 배합 기술로 3만 가지 색상을 구현해낼 수 있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3D프린터는 일반적으로 필라멘트 컬러만 출력이 가능하고 물성이 다른 재료는 복합 출력이 불가능한데 비해, 쓰리디코리아 제품은 필라멘트별 용융온도의 차별화 기술을 적용해 물성이 다른 재료를 투입, 복합 출력이 가능하고, 부위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출력물을 얻을 수 있어 산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독보적인 고기능 필라멘트 생산

쓰리디코리아가 풀 컬러 3D 프린터와 더불어 자랑하는 기술은 고기능 필라멘트 생산이다. 쓰리디코리아의 필라멘트는 향을 첨가해 장기간 향을 발산할 수 있는 향기 필라멘트, 밤에도 빛을 발생시킬 수 있는 5가지 종류의 야광 필라멘트, 금속성분을 첨가한 메탈 필라멘트, 유연성 있는 출력물을 위한 플렉시블 필라멘트, 고정밀과 고강도의 출력물을 위한 울템과 PEEK등의 엔지니어링 필라멘트 등 다양한 종류의 필라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향

기 필라멘트의 경우, 장미향, 허브향, 초콜릿 향 등 무독성의 다양한 방향 물질을 첨가해 향기 제품을 만드는 테라피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또 헬스케어 제품 출력 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인체에 유익한 음이온 첨가도 가능해 웨어러블 기기, 생활용품, 의료, 예술 등 응용폭이 매우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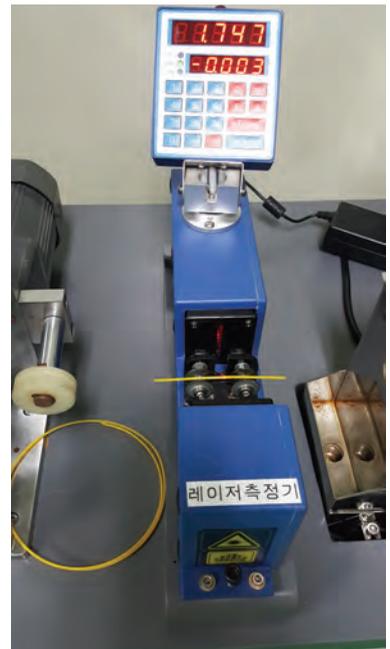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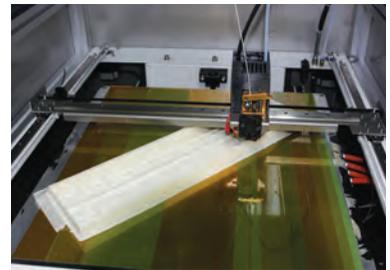
그리고 연구소 등에서 편의성 있게 필라멘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형압출기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필라멘트 생산, 재료 시험, 원료테스트 등도 가능하다. 이 외에 고객의 요구에 발맞춘 맞춤형 3D 프린터도 제작하고 있다. 쓰리디코리아는 3D프린터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용도에 맞게 출력 가능하도록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력물사이즈, 노즐사이즈, 주요 출력물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해 제작 및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자생력 있는 기술로 발전 이끌 것”

최문수 쓰리디코리아 대표는 3D 프린터를 칼에 비유했다. 칼이 용도나 모양에 따라 식칼, 조각칼, 절단기 날 등으로 쓰이듯이 3D 프린터 또한 활용 방향에 따라 예술 작품이나 생상품 모형, 의료 보조기구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최 대표는 “현재 3D 프린터 기술이 물체의 모양, 향, 재질까지 따라잡고 있다”면서,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실제 물체

와 같은 기능과 성질을 구현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독자적인 국내 3D 프린터 기술을 개발하고자 쓰리디코리아를 설립한 만큼 자생력 있는 기술들로 3D 프린터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혁 기자



道,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본격 시동

경북도가 자동차 튜닝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동을 힘차게 걸었다.

경북도는 지난달 도청 회의실에서 자동차튜닝산업관련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의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와 전문가그룹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도는 경북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인 드림모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용역은 김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세계튜닝시장은 미국 32조원, 독일 23조 원, 중국 17조 원, 일본 14조 원 등 약 100조 원 규모며,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비해 국내시장은 4천억 원에 불과하며 국내 튜닝관련 기업도 1천600여 개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튜닝 동호회원은 2008년 2만5천 명에서 2014년 5만6천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20년까지 1만3천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되면서 자동차 튜닝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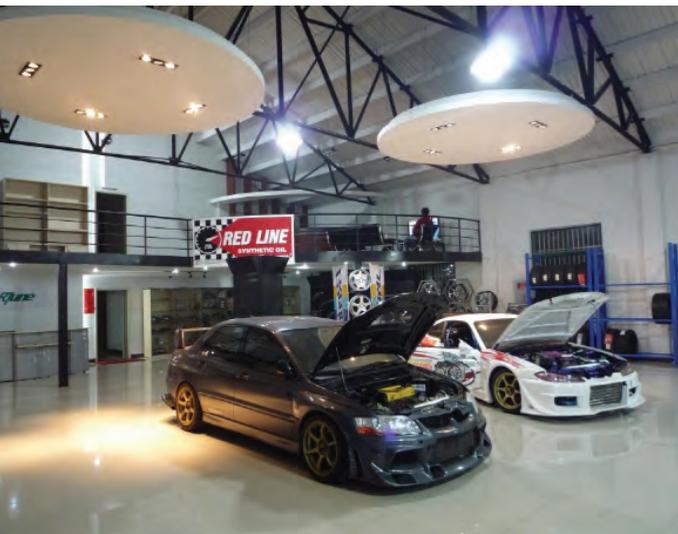
정부에서도 2013년 8월 자동차튜닝 종합활성화대책, 2014년 6월 자동차튜닝산업진흥대책,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 등 법제도 정비와 규제완화로 튜닝산업 활성화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튜닝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도는 우선 경주, 경산, 칠곡, 영천, 구미, 김천을 거점으로 하는 자동차부품산업벨트를 확대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전국 최고의 자동차튜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튜닝부품 인증·승인기관인 '자동차 튜닝 인증센터'를 유지하고, 경북 혁신도시 인근의 저렴한 산업단지를 활용, 자동차 튜닝복합서비스 단지를 조성해 튜닝부품 판매, 정비 등 복합적인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튜닝부품 및 튜닝 완성차 현장 성능시험, 가상체험 및 전시 등 튜닝 체험단지 조성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상철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경북도의 자동차부품 튜닝 클러스터 조성은 경북혁신도시 인근의 저렴한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KTX 등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유사사업과의 중복성을 배제해 경북만의 장점을 가진 자동차튜닝 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하면 중부권의 튜닝복합서비스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도효진 기자



대구시, 시민 소통 ‘활짝’

행복민원배심원제, 시민 생활상담실 등 운영
미해결 민원 해결 등 눈높이 소통 호응 얻어



정부가 ‘정부 3.0’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도 소통 강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경상북도는 민원 원스톱 응대 처리를 위해 ‘경상북도 행복콜센터’를 임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도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민원행정 프로그램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행복민원배심원제’, ‘시민생활상담실’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민원·제안·콜 통합시스템 ‘두드리소’와 ‘120 달구벌콜센터’가 민원 접수·처리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선진 소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운영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12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생활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이 시민 소통 강화 제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은 대구시와 구·군, 국세청, 병무청, 연금공단, 한전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세무, 병무, 법률, 일자리, 복지, 국민연금, 전기요금, 건강상담, 생활불편민원 등 다양한 분야(14개)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8회에 4,077명, 올해 상반기까지 4회에 2,405명, 총 12회에 걸

현장 민원장터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운영

모든 민원을 한자리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쳐 6,482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궁금증을 해결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서구 내당4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감삼못공원에서 '9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을 개최하는 등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원배심원제 운영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시민사랑방'과 함께 시민들의 소통 욕구에 부응하고자 '민원배심원제'를 마련했다. '민원배심원제'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의견을 달리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배심원들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민원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건의 민원배심원제 신청이 있었는데, 2건은 민원인이 스스로 취하였고, 2건은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며, 4건에 대해 민원배심원회의를 개최했다. 배심원회의를 개최한 민원 중 1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민원배심원제 운영 이후 행정기관에서는 신중하게 행정처리를 하게 됐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고충을 해결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생활상담실 운영

대구시는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약자의 권익보호와 생활향상 도모를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시민생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생활상담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노무, 세무 등 5개 분야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시민생활상담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15년 1,353건, '16년 상반기 619건이며, '16년 상반기 분야별로 실적은 법률 187건, 법무 39건, 노무 32건, 세무 16건, 소비자 345건이다.

강점문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민원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에 운영되는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시민행복도시 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도효진 기자

※ 상담분야 및 일정

구 분	법 률	세 무	노 무	법 무	소 비 자
상 담 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소비자연맹
상담요일	월·수	화	목	금	월~금
상담시간	13:00~15:00	14:00~16:00	13:00~15:00	13:00~15:00	10:00~12:00

경북도 내 시군에서는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된다.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부터 다양한 예술작품, 체험행사까지 즐길 거리가 가지각색으로 마련돼 있다. 특히, 가족 단위 행사도 대폭 확충돼 웬만한 가을 여행 부럽지 않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올 가을 가족 나들이를 위해 10월에 열리는 도내 주요 축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6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일시 10월 1일(토) ~ 10월 30일(일)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이 개최된다. 페스티벌은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 개최되며, 주제에 부합하는 유명 조각가의 스틸작품 30여점과 철강공단 근로자의 스틸작품 20여점을 영일대해수욕장 스틸아트웨이 구간에 설치한다.

올해는 외국작가로는 처음으로 이태리와 중국 작가 2명이 참여하며 형광색 꽃 모양의 작품과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는 스틸미러 목조여인상을 각각 현장에 설치해 설치 퍼포먼스의 재미를 제공한다. 또한, 철저한 세미나와 현장교육을 통한 '베스트 스틸도슨트(Best Steel-Docent)'의 작품 해설 투어에 이르기까지 '미술관을 품은 바다'를 더욱 생생하게 안겨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버스·크루즈를 활용한 아트웨이 투어, 그리고 대장간 체험, 영일대 미로찾기, 드림통 아트 등 체험 프로그램 30여종, 예술 강사 파견을 통한 유치원·학생·일반시민 등의 참여 작품 부스 전시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6 상주이야기축제

일시 10월 7일(금) ~ 10월 9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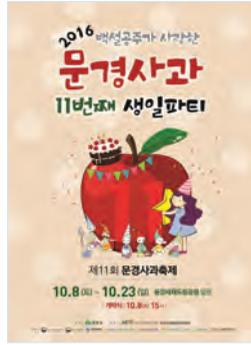
'자전거 도시' 경북 상주에서 펼쳐지는 상주이야기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다. 상주이야기축제는 3년 연속 경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상주 대표 축제로 올해는 작년에 이어 '자전거'를 주제로 선택했다. 축제는 '나와 자전거 이야기 경연대회', '지상최대의 자전거 퍼레이드' 등 자전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와 자전거 이야기 경연대회'는 자전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회로, 올해 2회째를 맞았다. '지상최대의 자전거 퍼레이드'도 빼놓을 수 없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퍼레이드는 참가자들과 함께 축제장 주무대에서 출발해 시내 5KM를 행진한다.

일반 자전거뿐 아니라 이색 자전거 콘테스트에 출품한 자전거도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축제장 내 비치된 자전거 대여소에서 누구나 시민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으며, 축제장 내에 자전거를 이용한 '푸드 바이크'들이 준비돼 먹을거리 제공한다. 지역 자전거 동호인들은 축제장 내 홍보부스에서 자유롭게 동호회를 홍보할 수 있다.





2016 문경사과축제

일시 10월 8일(토) ~ 10월 23일(일)

2016 문경사과축제가 10월 8일부터 23일(16일간)까지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라는 주제로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40대 여성을 주 고객으로 설정해 어린이 관람객의 축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과판매 효율화를 위해 행사공간의 효율적인 배치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행사내용으로는 문경 명품사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축제를 통한 문경사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체험행사, 전시행사, 특별행사, 공연행사, 판매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장은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사과 축제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문경사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6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일시 10월 15일(토) ~ 10월 23일(일)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풍기인삼축제가 올해부터 축제 명칭을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로 변경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영주 풍기읍 남원천 둔치에서 개최된다. 풍기인삼축제는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인데다 판매 위주의 행사가 아닌 풍기인삼에 대한 역사를 스토리텔링하기 때문에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체험행사는 전국 우량인삼선발대회와 풍기인삼 각기 경연대회, 인삼 병주 만들기, 인삼 인절미 떡메치기, 인삼김치 전시 및 웰빙 인삼요리 전시, 인삼 가공제품 홍보, 전시 판매, 기념사진 무료인화, 인삼주스 무료시음, 다문화 전시 및 체험, 마임 퍼포먼스, 유등 전시, 천연염색체험, 대장간 시연 및 전시, 인삼 캐기 등 다채로운 체험 전시 행사가 마련된다. 또 특별행사로 풍기인삼 개삼터 고구제와 풍기인삼대제, 풍기인삼 경매행사가 준비 중이다. 연계행사로는 올스타씨름장사대회와 영주사과 홍보행사,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생활체육동호인 초청 축구대회, 경북동호인 게이트볼대회, 한우 소비촉진행사 등이 마련된다.

포스텍기업가센터 · 대경인재개발원, 창업 멘토 양성 워크숍 개최



대기업, 금융권 퇴직인력 대상 전문 창업 멘토 양성을 위한 ‘창업 멘토 양성 워크숍’이 지난달 9일 팔공산 인근 청정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대경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주최하고, 포스텍기업가센터와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 전문기관인 대경인재개발원이 주관한 창업 멘토 양성 워크숍은 대기업 및 금융권 출신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실시해 그들이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 창업자들의 자문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

키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대기업 및 금융권 출신 퇴직자, 포스텍 창업지원자문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소재 금융권 출신 퇴직자 30여 명에게 창업 멘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년창업 가이드, 자금조달을 위한 전문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가 역량 평가 등 다양한 교육이 실시됐다.

청도군, 경북식품박람회 우수기관 선정



청도군은 지난달 구미시 박정희체육관에서 경상북도 주관으로 도내 23개 시군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9회 경북식품박람회’ 행사에서 효율적인 식품 전시, 판매, 지역 대표음식 홍보 등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부터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대표적 농특산물인 청도반시, 한재미나리 등을 활용한 우수 가공식품 전시, 판매, 청도 대표음식인 추어탕 전시, 홍보 및 시

식코너 운영 등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장을 찾아온 전국의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요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식품업체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 내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불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히, 청도의 대표음식인 추어탕의 맛과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전국 최고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道, ‘한티 가는 길’ 개통식 개최



경북도는 지난달 10일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칠곡가실성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백선기 칠곡군수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교 순교길로 이름난 ‘한티 가는 길’ 개통식을 가졌다.

‘한티 가는 길’은 2013년부터 27억원을 투입해 19세기 초 천주교 박해 때 왜관에서 동명 한티순교성지까지 천주교인들이 걸었던 길을 모티브로 칠곡가실성당에서 지천면 신나무골 성지를 거쳐 동명면 한티순교성지까지 총 45.6km의 장거리 도보길로 방문자지원센터, 안내판, 쉼터, 정자,

대피소, 데크로드 등 숲길을 조성했다.

5개 구간으로 구분된 ‘한티 가는 길’은 구간별로 역사적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 1구간 가실성당 ~ 신나무골 10.5km ▲ 2구간 신나무골 ~ 창평저수지 9.5km ▲ 3구간 창평저수지 ~ 동명성당 9km ▲ 4구간 동명성당 ~ 진남문 8.5km ▲ 5구간 진남문 ~ 한티순교성지 8.1km 등 총연장 45.6km로 구성됐고, 이 중 숲길은 27km로 기존 임도 6.8km와 기존 마을길 11.8km를 활용해 급경사가 없이 편안하게 장거리 도보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포항시-울릉군, 독도 특별전시회 진행



포항시와 울릉군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독도 그 역사 속으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독도 연구 및 전시분야에 있어 가장 전문성이 있는 독도 박물관(울릉군 소재)의 소장 자료 가운데 독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감상할 수 있는 50점의 유물과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개회식에서 "울릉도·독도 관문인 포항에서 전시회를 계기로 전 국민 독도 밝기 운동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포항시와 울릉군(독도박물관)이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독도를 품은 해상왕국 '우산국', '조선 영토 우산·무릉', '대한제국 독도 경영', '일본 불법 침탈', '다시 찾은 우리 영토, 독도'라는 소주제로 나눠 독도와 관련한 사료를 선보이고 있다.

영양군, 군민 달빛걷기 행사 개최



영양군은 지난달 공설운동장 축구보조구장에서 '일상이 걷기가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건강을 위한 군민 달빛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군민 달빛걷기' 행사는 함께 걷기를 통해 전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실천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걷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축구보조구장에서 출발해 현동 마을 앞 반변천 오솔길 3.7km를 가족과 직장동료 그리고 이웃과 도란도란 정겹게 대화하며 달빛과 함께 걸었다.

행사 내용으로는 빠르게 걷기 방법 및 체험, 즐거운 음악과 함께 몸풀기, 무창리 어르신들의 신나는 댄스공연으로 참가자들에게 걷기의 즐거움을 제공했고, 걷기 완주 후에는 음악 디미방과 함께 하는 활기찬 음악 공연으로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걷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어르신 운전자 안전 1등급



영주시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자치단체별로 분석한 '어르신 운전자(65세 이상) 사고위험안전도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이 분석 자료를 보면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나누고 사망자가 적은 상위 15%(23개 시군)만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영주시는 최근 2년간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정비 2억원, 횡단보도 투광기(LED) 설치사업 1억원,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3억원, 차선도색 6억원, 횡단보도 설치사업 1억원 등을 투자해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사고예방을 강화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우선시 하는 교통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경인재개발원’은
지역의 인재를 발굴·양성해 조국과
민족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교육 및 프로그램

- 인재양성
- 리더십 역량개발
- 창업 및 기업가 정신
- 학점인증제
- 성공 및 감성마케팅
- 테마별 맞춤 특강
- 교육훈련
- 편(Fun) 경영 등 경영전략
- 주민자치대학, 좌담회, 토론회 등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8길22. 3층
 (지산동 1038-3) Tel: 053.721.6757 Fax) 053.766.0379

경북본부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